

# 무등산 입석대·서석대 못오른다

■ 광주시, 7월 20일부터 “주상절리 보호”

직접 접촉 금지 통제선 밖에서 관람

무단 출입 땐 과태료·훼손 땐 징역형



해 입석대·서석대 주변 탐방로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해 올해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해 전망대를 설치하고 우회 탐방로 등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주상절리대 출입제한 조치는 교수·무등산 보호단체 등 관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취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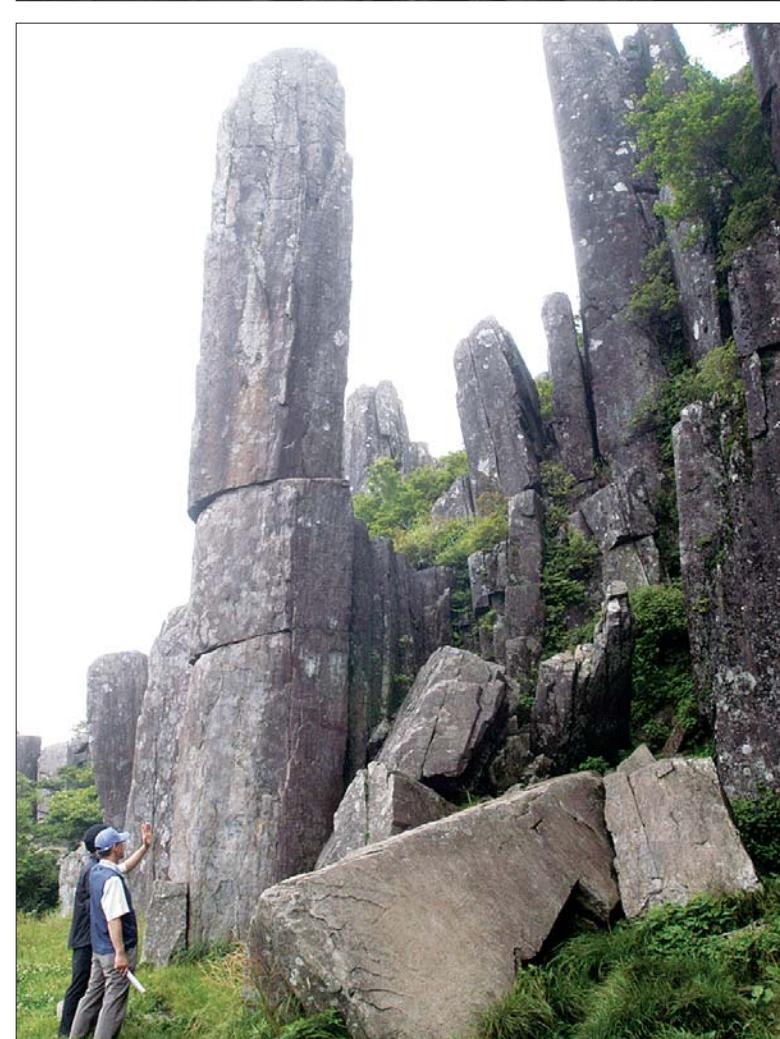
전남대 박승필 자리학과 교수는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육지에서는 유일한 자연자원으로 학술적 가치가 크다”며 “특히 입석대는 탐방객들의 발길로 하부 흙이 유실되면 겉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어 출입제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중생대 백악기 후기 나트륨을 많이 함유한 석영암 산암(石英安山巖) 용암이 냉각되면서 물리적 풍화에 의해 형성된 화산활동의 산물로, 수직으로 솟아오른 돌기둥과 동서로 길게 발달한 돌 병풍이 빼어난 지질 경관을 이루고 있다.

임희진 무등산공원관리소장은 “후대에 무등산 천연기념물을 원형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며 “학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존사업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주상절리대 보존용역을 통해 훼손지역 생태복원공사·보호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자연휴식을 위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주상절리가 훼손되기 전인 90년대 무등산 입석대 <위>. 아래는 3~4년 전 무너진 입석대의 돌기둥. 무등산관리사무소 측은 등산객의 짓은 벌길로 하부 흙이 유실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 주상절리 훼손 원인과 실태

### 밀동 흙·돌 패어나가 기초 ‘흔들’

### 돌기둥에 앉아 식사·곳곳 낙서도

쳐를 안겼다. 돌기둥 윗부분이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었으며, 흙들이 스며들어 밝은 회색의 돌기둥이 누렇게 변하고 있었다.

서석대도 2~3년 전에 돌기둥 하나가 넘어졌다. 입석대보다 돌기둥 사이의 틈이 적어 무너진 정도가 덜 하지만 지금도 등산객들이 돌기둥 윗부분에 앉아 식사를 하는 등 훼손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무등산 탐방객은 2000년 500만 명을 넘어서 이후 6년만인 지난해 835만5천364명에 이르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정상까지 100~200개가 목격됐다. 입석대에서 서석대로 올라가는

등산로 0.5km 구간도 훼손이 심각해 아랫부분의 흙과 돌이 조각 쪼개어나간 것이 원인이라고 무등산 관리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탐방객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신발에 물

광주시가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출입제한을 발표한 26일 오전 찾았아 간 입석대(해발 1017m)·서석대(1105m)는 돌기둥 일부가 무너진 데다, 여기저기에 지져분한 낙서까지 새겨져 있었다.

반달모양으로 돌기둥이 모여있는 입석대 중앙부에는 15m 돌기둥 하나가 쓰러져 네 동강이 나 있었다. 3~4년 전 무너진 이 돌기둥은 탐방객들이 늘어나면서 기둥을 받치는 아랫부분의 흙과 돌이 조각 쪼개어나간 것이 원인이라고 무등산 관리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탐방객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신발에 물

# 전남 모 경찰서장 관용차 타고 골프

## 중앙선 침범 사고 ‘물의’

전남지역 한 경찰서장이 경찰청의 ‘골프 차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3일 새벽 5시30분께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인근 도로에서 전남 모 경찰서 H서장의 관용차(운전자 강모 수경·22)가 중앙선을 침범, 50주27×호 벤츠 승용차(운전자 황모·경기도 하남시·43)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벤츠 운전자 황씨와 함께 탔던 고모(45·무안군)씨가 옆구리 통증 등으로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승용차는 2천500만원 가량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이날 사고는 운전담당인 강 수경이 H서장을 무안CC 골프장에 내려 준 뒤 경찰서로 되돌아가던 중 발생했다.

H서장은 “쉬는 날 지인들과 골프

를 치려는데 차가 없어 관용차를 타고 갔다”며 “공적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됐으나 골프 비용은 각자 부담했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령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제10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은 관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의 ‘공용차량 관련 업무지시’에 따르면 관용차·순찰차 등의 공용차량을 의경이 혼자 운전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사고 당시 강 수경은 홀로 차를 운전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H서장이 ▲‘골프 차제’ 지시를 어기고 골프장에 간 점 ▲집대 골프를 받았는지 여부 ▲사적인 일에 관용차를 사용한 점 등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초 ‘호국보훈의 달’과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골프를 자체해 달라’는 공문을 각 지방경찰청에 발송한 후, 일선 서장 등에게 직접 전화 통보까지 했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 짙은 안개…선박 충돌 잇따라

오락가락하는 잠마전선에서 발생한 짙은 해무(海霧)로 선박 충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목포·신안·진도 일대 해역은 짙은 해무로 가시거리(可視距離)가 1km에 그치고 있어 지난 22일 오전부터 저시정(低視能) 3급 ‘상태’가 발효 중인 상태다.

26일 오전 8시35분께 진도 조도면 맹팔동(동남쪽 4.4km 해상에서 부산선적 유조선 2천800t) ‘주경호’(선장 장도·65)가 조업 중이던 여수선적 병어잡이 어선 9.77t급 ‘626 광성호’(선장 김모·49)와 부딪친 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시간

만에 사고 지점에서 32km 떨어진 신안 우이도 해역에서 ‘주경호’를 불잡아 사고 및 도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오전 7시55분께에도 목포항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예인선 127t급 ‘601 신정호’(선장 김모·46)와 목포선적 0.85t급 어선 ‘신안호’(선장 주도·48)가 충돌, ‘신안호’가 침몰했으나 선장 주씨는 ‘신정호’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 관계자는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해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조업을 하는 어선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도어 대리점

▶문서(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리**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창(062)525-9002 ▶전주창(063)271-5051

의사가 환자 마취해 상습 성폭행

O-경찰 통영경

찰은 26일 진료를 받았으려는 여자 환자

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통영시내 모 의원 원장 A(41)씨를 강간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

O-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려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잇따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O-A씨는 위나 장이 나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자 뒤따라 냉여오던 남편이 아내를 구하려 물속으로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인 정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경찰은 저수지 ‘풍덩’

## 50대 부부 숨져

26일 낮 12시59분께 장성군 삼사면 흥정저수지에 정모씨(여·55·광주시 동구 계립동)가 몰던 광주 11가 xxxx호 프라이드 승용차가 추락, 정씨와 남편 최모씨(56)가 숨졌다.

사고 직후 운전자 정씨는 휴대전화

로 119에 신고를 했으나, 구조대가 출동했을 당시 정씨는 차 안에서, 남편은 차 밖 10m 거리 떨어진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저수지 인근 산소에 별초를 다녀온 정씨가 혼자 승용차를 몰다 저수지에 빠지자 뒤따라 냉여오던 남편이 아내를 구하려 물속으로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인 정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 중국1-전세기상품

페카지1 (광주출발)	CZ	4일
고구려 문화 유적지 탐방	569,000	▶(~7/13) 매주 금요일 출발
페카지2 (광주출발)	CZ	4일
백두산/신양	699,000	▶(~7/13) 매주 금요일 출발
페카지3 (광주출발)	CZ	5일
북경/백두산/신양	839,000	▶(~7/13) 매주 월요일 출발

## 중국2-대한항공상품

페카지1 (광주출발)	KE	5일
상해·소주/황주/무석	319,000	▶7월 14일
페카지2 (광주출발)	KE	4일
상해/경기/원가계	799,000	▶7월 25일 / 8월 8, 22일
페카지3 (광주출발)	KE	5일
상해·황주/경기/원가계	859,000	▶7월 21일 / 8월 11일
페카지4 (광주출발)	KE	4일
상해/황주/황산	739,000	▶8월 15일
페카지5 (광주출발)	KE	5일
상해·황산/황주/주가각	699,000	▶7월 21일 / 8월 11일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주)조이트래블**  
대표 전화 (062) 234-3222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일본 전통 온천호텔과의 만남 299,000

▶출발일: 7월 11일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벳부전통온천호텔  
▶여행자보험 1억원 기입/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주전 상품 1 (광주 출도착)

일본 전통 온천호텔을 체험하는 질주의 친수!! 419,000

▶출발일: 7월 19일 / 8월 2, 5, 8일  
▶숙박: 온천호텔 또는 특급호텔  
▶전 일정 노음선/ 광주 출·도착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기입/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주전 상품 2 (광주 출도착)

'동화 속 느낌' 하우스텐보스 429,000

▶출발일: 8월 12, 16, 19일  
▶숙박: 특급호텔  
▶전 일정 노음선/ 광주 출·도착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기입/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온천과 접통 료칸을 즐기세요!!

양코르আ!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광성거제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동종번호 : 제2003-1호

